

연중 제33주일(11월 19일) 탈렌트의 비유(마태 25,14-30)



충직한 종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마태 25,14,19,23~)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상상할 수 없는 갖가지 보물들을 떠올려 봅시다. 이 보물을 주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활용한다면, 주님의 종인 우리는 행복합니다. 마침내 주인이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성실한 종은 주인과 함께 큰 즐거움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출처: 서울주보, 2014. 11. 16.)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1번 “형제에게 베푼 것”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마태오 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4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15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16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 17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렌트를 더 벌었다. 18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19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20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1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2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3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4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5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26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겠다는 말이나? 27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28 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29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30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마태 25,18)
우리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임무, 즉 받은 은총의 이익을 남기는 일에 소홀하고 늘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시다.

†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마태 25,29)

모든 신자는 각각 그 능력에 맞는 은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익을 남겨합니다. 성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기도생활, 성사생활, 사랑실천 계획을 해 봅시다.

-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죄가 많지만 잃었던 나를 찾고 용서받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 나는 자랑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 나는 늘 휘청거리기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나는 약하나 강력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 나는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 나는 실패도 많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록 예수님이 용기를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 나는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나의 결점이 너무 많은데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 아직도 내 마음에 고통을 느낍니다. / 그래서 나의 이 아픔을 예수님과 나누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 나는 당신보다 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 나는 단지 죄인이지만 하느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6번 “사랑의 송가”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